

(2016. 3.19 시행) 제1차 경찰(순경) 채용 [국어] 해설

해설 : 안한섭 교수 [제일고시학원(중앙로점/충남대점) www.okpass.com]

1. 밑줄 친 낱말의 차용 방식이 다른 것은?

(가) 赫居世王 盖郷言也 或作㉠弗矩内王 言光明理世也

- 『삼국유사』 권 제1 중에서-

(나)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 『삼국유사』 권 제2 「처용가」 중에서-

① ㉠ : 弗矩内

② ㉡ : 入

③ ㉢ : 可

④ ㉣ : 羅

정답 : ②

[해설]

‘향찰’의 표기 방식은 대체로 형식형태소는 ‘음차’로, 실질형태소는 ‘훈차’이다. 따라서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만 구별할 줄 알아도 풀 수 있다.

(가) 赫居世王 盖郷言也 或作㉠弗矩内王 言光明理世也

‘혁거(赫居)세왕’은 대개 향언(신라어)인데 혹은 ㉠불구내왕(弗矩内王)이라고도 한다. 세상을 빛으로 다스린다는 말이다.

(나) 東京明期月良 (새별 밝기 달에)

夜㉡入伊遊行如㉢可 (밤㉡들이 노니다㉢가)

入良沙寢矣見昆 (들어사 자리 보곤)

脚烏伊四是良㉣羅 (가랑이 네시어㉣라)

따라서 ㉡만 훈차(훈독)이고 나머지는 음차(음독)임을 알 수 있다.

2.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하였다.

나. 초성자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다. 중성자의 기본자는 조음 기관을 상형하여 창제하였다.

라. 중성자는 따로 창제하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하게 하였다.

마. ‘ㄱ’, ‘ㄷ’, ‘ㅂ’처럼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을 합용병서라고 한다.

① 가, 다

② 가, 나, 라

③ 나, 라

④ 나, 다, 마

정답 : ④

[오답 해설]

나. 초성자(자음)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다. 중성자(모음)의 기본자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상형하여 창제한 것이다. ‘조음기관(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창제한 것은 초성의 기본자이다.

마.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ㄱ, ㄷ, ㅂ’처럼 동일

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 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북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북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 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떠밀어 조각을 내었다.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중략>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우리 서클 아이들이 봉산 탈춤 발표회를 갖기로 했거든요. 학교 축제의 하나예요.”

“그런데?”

민 노인의 물음에는,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나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북장단을 맡아 주셨으면 하구요.”

“뭐라구? 그건 나와 번지수가 달라. 해 본 적도 없구.”

“한두 번만 맞춰 보시면 될 건데요.”

“연습까지 하고? 아서라. 더구나 니 애비가 알면 큰일난다.”

“염려 마세요. 저하고 비밀만 지키면 되잖아요. 애들한테도 다 말해 났구, 지도 교수의 허락도 받았다고요.”

“임마, 그건 너희들끼리 해도 되잖아. 나까지 끌어내지 않아도.”

“누가 그걸 모르나요. 자리를 더 좀 빛내 보자 이겁니다.”

“나는 무대나 안방에만 앉아 봤지, 넓은 마당에서는 북을 쳐 본 경험이 없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말을 안 꺼냈다면 몰라도, 이제 와서 제 체면도 좀 봐 주셔야죠.”

“이 녀석들 보게. 애비는 애비대로 내 북 때문에 제 체면이 깎인다는 판에, 자식은 또 북으로 체면을 세워 달라니 무슨 조화속인지 어지럽다.”

“아버지와 저와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 말도 못 알아듣겠다.”

“설명하자면 길구요. 이번 일은 꼭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제판에는 모처럼 할아버지께서 신바람 내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얼씨구. 이 녀석 봐라.”

- ① 손자 ‘성규’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 ② ‘민 노인’의 아들은 ‘민 노인’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시한다.
- ③ ‘민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있다.
- ④ 손자 ‘성규’는 일이 끝난 후 받게 될 혜택을 제시하며 ‘민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정답 : ④

[해설]

이 작품은 최일남의 ‘호르는 북’이다. ‘성규’는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것과 ‘모처럼 할아버지께서 신바람 내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가 있다고 했으므로 일이 끝난 후 받게 될 혜택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9. 다음 중 적절한 한자만 쓰인 것은?

- ① 이 무기는 辭呈 거리가 너무 짧다. 신무기 개발과 補給이 時急하다.
- ② 사건을 造作한 것이 경찰에 의해 發覺되었다. 이는 권력을 지나치게 濫用한 결과다.
- ③ 조선시대 의식주에 관한 資料가 필요하면 민속학 事典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라. 그리고 고적을 答辭해라.
- ④ 이번 事件에 대해 한국 정부는 有感의 뜻을 표했다. 이는 한국인의 소행으로 斷定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②

[해설]

②는 ‘사건을 꾸민 것(造作 조작)이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發覺 발각). 이는 권력을 지나치게 함부로 쓴(濫用 남용) 결과이다.’란 의미이다. 따라서 ②의 한자는 모두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辭呈→射程(사정): ‘사정’은 ‘발사되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말이므로, ‘射程(쏠 사, 한도 정)’으로 표기해야 한다. 사정(辭呈)은 벼슬아치가 벼슬을 그만두거나 말미를 받기 위하여 청원서를 내던 일을 뜻한다.
- ③ 答辭→踏査(답사): ‘답사’는 목적어 ‘고적’을 볼 때, ‘방문하여 조사하다’란 말이므로, ‘踏査(밟을 답, 조사할 사)’로 표기해야 한다. 답사(答辭)는 식장에서 환영사나 환송사 따위에 답하는 말이다.
- ④ 有感→遺憾(유감):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이란 의미이므로 ‘遺憾(끼칠 유, 한할 감)’으로 표기해야 한다. 유감(有感)은 느끼는 바가 있다는 뜻이다.

10. 다음에서 외래어 표기가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 | |
|------------------|-------------|
| ㉠ zigzag 지그재그 | ㉡ vision 비전 |
| ㉢ leadership 리더쉽 | ㉣ yellow 옐로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 ②

[해설]

- ㉡ vision(비전→비전)
- ㉢ leadership(리더쉽→리더십)

[오답 해설]

- ㉠ 유성 파열음(g, d, b)은 '으'를 붙여 적는다. 따라서 'zigzag[zigzæg]'는 '지그재그'로 표기한다.
- ㉣ [ou]는 '오'로 적는다. 따라서 'yellow[jelou]'는 '옐로'로 표기한다.

11. 이 글을 쓸 때 세운 글의 계획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께!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2학년 박○○입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바람이 자취를 감추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봄기운을 느끼며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방송반 동아리 모임에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에 선생님과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 모임에서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 궁금했던 것을 여쭙 수 있어서 무척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모임에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싶은 일이나 진로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방송작가나 방송 제작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직업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실은 대학 진학도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 여러 학교 일로 바쁘시겠지만 진로나 진학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환절기라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신 : 학기 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답장은 편하신 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계절 변화를 환기한 후 안부를 묻는다.
- ② 선생님께 편지의 용건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 ③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므로 정중하고 공손하게 표현한다.
- ④ 선생님께 지난 과거 일을 말씀드리며 실수한 일에 용서를 구한다.

정답 : ④

[해설]

필자는 선생님께 지난 과거 일을 말씀드린 것은 맞지만 과거의 실수나,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은 없다.

1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영과 나는 소꿉친구다. 나는 수영을 언제부터가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다. 수영은 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한다. 그래서 내일은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고백할 생각이다.

- ① 가멸다 ② 슬겁다 ③ 몽따다 ④ 곱삭다

정답 : ③

[해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하다’란 뜻을 가진 말은 ‘몽따다’이다.

[오답 해설]

- ① 가멸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다.
- ② 슬겁다: 집이나 세간 따위가 겉으로 보기보다는 속이 꽤 너르다. 또는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덥다.
- ④ 곱삭다: 옷 따위가 오래되어서 울이 삭고 질이 약해지다. 또는 것갈 따위가 오래되어서 폭삭다. 또는 풀, 나뭇가지 따위가 썩거나 오래되어 푸슬푸슬해지다. 또는 두 사람의 사이가 스스럼없이 가까워지다.

1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쓰인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갔다.

- ①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 ②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하는 높임법이다.
- ③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높임법으로, 종결 어미에 의해 청자에 대한 높임이나 낮춤의 정도가 표현된다.
- ④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여 높임을 표현한다. ‘계시다’, ‘잡수시다’ 등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정답 : ②

[해설]

밑줄 친 ‘모시고’는 ‘데리고’의 높임어로, 문장의 객체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높임법’에 사용되는 어휘이다. 위 문장에서는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는 것은 ‘상대높임법’의 설명이다.
- ③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높임법은 ‘상대높임법’이다.
- ④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여 높임을 표현하는 것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주체높임법’이다. 한다.

※ [14~15]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너러신고요

어귀야 존 디를 드디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 내 가는 디 ㉡점그를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나)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픽리도 꾀리도 엽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늑밋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깃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거를 ㉣드로라

14. 위 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현실의 삶에 토대를 두고 있는 작품으로서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 ④ (가)는 특정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화된 정서를 드러내고 (나)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 : ④

[해설]

(가) 작품에서 ‘감정이입’은 확인할 수 없고, (나)에서는 ‘대립적 이미지’가 드러난 시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어귀야 어강도리’를, (나)는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는 백제가요인 ‘정읍사’이다. ‘저재(시장에) 내려신고요(가 계신가요)’로 볼 때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노래한 것이다. (나)는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이다.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우니노라)’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악학궤범에 한글로, (나)는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후에 한글로 기록되었다.

15.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머리곰 : ‘멀리멀리’의 의미로서 시적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점그를세라 : ‘저물까 두렵다’의 의미로서 야간에 남편이 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시적 화자의 심리가 나타난다.
- ③ ㉢ 미리도 괴리도 없이 :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의 의미로서 고독한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드로라 : ‘듣는가’의 의미로서 비록 홀로 있지만 사랑하는 임과 함께 신비로운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 ④

[해설]

㉣의 ‘드로라’는 ‘듣노라’란 뜻이므로 ‘듣는가’의 의미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사슴이 장대 위에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 것’과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시적 화자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므로 신비로운 소리를 듣기를 바란다는 설명 또한 맞지 않다.

16.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녀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녀뿐이다.
- ②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그리고 궁금한 것은 스스로 책이나 컴퓨터로 찾아보아라.
- ③ 우리는 어릴 망정 어떤 고난도 참아 냈다. 지금까지 애쓴 만큼 강팀들도 이길 수 있다.
- ④ 철수는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나 사장님에게 혼나기는커녕 수고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

정답 : ③

-[해설]

어릴 ∨ 망정 → 어릴망정: ‘망정’은 본래 의존명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르망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17. 다음 중 문장의 구성이 다른 것은?

- ① 꽃이 피는 봄이 되었다.
- ② 재물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③ 누나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알렸다.
- ④ 운동을 매일 하는데도 건강이 안 좋다.

정답 : ④

[해설]

- ① 꽃이 피는 봄이 되었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② 재물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③ 누나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알렸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④ 운동을 매일 하는데도 건강이 안 좋다.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18. 다음 문장 중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것은?

- ① 어제 만났던 그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다.
- ② 군대에 가는 민수는 후배들에게 책을 주었다.
- ③ 배가 많이 고팠던 철수는 라면을 맛있게 먹었다.
- ④ 삶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정답 : ②

[해설]

‘주다’는 ‘누가(주어) 누구에게(부사어) 무엇을(목적어) 주다’란 형태로 사용되므로 3자리 서술어이다. 나머지는 모두 2개의 문장성분을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19. 다음은 한글맞춤법 제30항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사이시옷 표기가 된 합성어의 예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

2016. 기출문제 해설

	㉠	㉡
①	꿇병	꿇밥
②	넛가	넛길
③	자릿세	전셋집
④	아랫집	아랫방

정답 : ④

[해설]

㉠ 순우리말 ‘아래’와 순우리말 ‘집’의 합성어.

㉡ 순우리말 ‘아래’와 한자어 ‘방(房)’의 합성어.

[오답 해설]

① ㉠ 순우리말 ‘귀’와 한자어 ‘병(病)’의 합성어.

㉡ 순우리말 ‘귀’와 순우리말 ‘밥’의 합성어.

② ㉠ 순우리말 ‘내’와 순우리말 ‘가’의 합성어.

㉡ 순우리말 ‘배’와 순우리말 ‘길’의 합성어.

③ ㉠ 순우리말 ‘자리’와 한자어 ‘세(貰)’의 합성어.

㉡ 한자어 ‘전세(傳貰)’와 순우리말 ‘집’의 합성어.

20. 다음 ㉠~㉣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識字憂患
 ㉡ 角者無齒
 ㉢ 螳螂拒轍
 ㉣ 得隴望蜀

① ㉠ 아는 것이 병이다.

② ㉡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

③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④ ㉣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

정답 : ④

[해설]

㉣의 ‘득隴망蜀(得隴望蜀)’은 ‘농이라는 땅을 얻었는데도 촉나라를 바라본다는 뜻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림’을 뜻한다. 그런데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는 ‘세상사는 늘 돌고 돈다.’는 말이므로 같은 뜻이 아니다. ‘득隴망蜀(得隴望蜀)’과 의미가 유사한 속담으로는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가 있다.